"장애, 수행 방해물이자 발전 토대"

정준영 교수, 20일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수행은 장애를 수반한다. 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장애가 단순히 방해물만이 아니라 발전의 토대가 되며,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는 '장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분석하고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사마타 수행에서 오장애의 제거를 도왔던 선지들은 더 높은 선정으로 오르기 위해 장애가 되고, 선정 또한 상수멸정까지 상승하며 구신의 삼행도 중지된다.

정준영 교수는 "집중의 순기능이었던 삼행이 사마타의 상승구조 안에서 모두 장애가 된다"면서 "장애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도 도와 비도의 지견청정에서 나타나는 심관수염은 장애이지만, 이를 칠각지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마타 · 위빠사나 장애 분석

좋은 요소도 집착하면 번뇌

단순히 역기능 한정은 문제

장애 기능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 프로그램 수행자 괴롭혀

요소들이 같거나 유사하다. 번뇌와 각지는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유한 성질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는 수행자의 태도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준영 교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은 특별한 현상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10월 20일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 집착하면 장애"라면서 "장애를 단순히 수행의 역기능적 작용에 한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대로 장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대중프로그램들이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준영 교수는 "장애의 성질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두려움이나 위험 등 부정적인 정서는 역기능적 정서지만, 소멸이라는 현상과 비교할 때는 높은 단계의 체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는 수행의 방해물인 동시에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장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수행자 개인의 수준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 프로그램이 수행자를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명상, 힐링인가 레저인가'를, 박상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자아의 확립과 초월의 상관관계'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심리치료의 치유적 기능과 그 한계'를,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을 각각 발표했다.

문정왕후 발원 '회암사 약사삼존도' 보물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만수무강을 위해 조성한 400여 불화 중 하나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조선시대 불상 · 경전 4건도

조선 문정왕후(1501~1565)가 아들 명종의 만수무강을 위해 제작한 불화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를 비롯해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 · 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가 아들인 명종(明宗)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檜巖寺)의 중창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고 회암사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했다. 이후 쇠퇴해 19세기 초 폐사지가 되었고, 지금은 '회암사지(檜巖寺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돼 있다.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주존불과 보살 간에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랐고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당시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여래삼존도'만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왕실 불사 회암사에서 제작한 역사적, 불교사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작품"이라며 "조선 전기 왕실불교 부흥에 영향을 끼친 왕실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화원이 제작한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다"고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 · 시왕 · 판관 · 사자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조각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불교의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중 각각 권3과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권3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판본(版本) 중 하나로, 1352년(공민왕 1년)에 간행됐다는 보물 제875호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통해 권3 역시 이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5는 조선 초기에 사용된 구결(口訣)이 표시돼 서지학 ·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 티베트어 번역 성과 살핀다

동국대 티베트대장경 역경원, 11월 2일 심포지엄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원장 진옥)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교내 백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2018 하반기 초청 강연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국제 불교 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사이토 아키라 前도쿄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바웃다코샤(불교 용어의 용례집)프로젝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사론' 5위 75법의 현대 번역어 선정 과정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강연자와 함께 '구사론' 5위 75법에 수록된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바웃다코샤 프로젝트'는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을 위해 일본의 불교학자들을 총망라했으며, 가장 먼저 불교용어의 기본이 되는 '구사론'의 5위 75법의 용어를 범어, 한역, 티벳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현대어(일역 및 영역)로 번역했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장 진옥스님은 "불교 용어의 현대적 번역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채택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일본은 한자문화권이면서도 자국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한 토대에서 선행된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쉬운 한글 술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번역어를 채택하려는 본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수덕사 본말사 성보의 '모든 것'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3일 학술대회

덕숭총림 수덕사와 말사들의 성보 문화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수덕사(주지 정묵)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성보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이 '수덕사 소조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을,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연구'를,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가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분석'을 발표한다.

또한 최은령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서산 일락사 금동여래좌상 연구'를, 이승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 김지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학예연구사가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연구'를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무아와 자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학연구회 11월 10일 추계학술대회

무아와 자아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1월 10일 오전 8시 30분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무아와 자아,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를,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식학의 법무아 해석과 여래장 사상'을, 정상교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둘러싼 붓다팔리타 · 바비베카 · 찬들키르티의 논쟁'을, 박보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가 '초기 화엄종의 여래장 이해'를, 최경아 동국대 외래교수가 '부파불교에서의 자아와 무아, 그 오해와 진실'을, 박재현 동명대 교수가 '입전수수하는 자, 그는 누구인가- 소그림을 통해본 선의 자아관'을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대), 우동필(전남대), 남수영(동국대), 양승규(동국대 경주), 고승학(금강대), 조윤경(동국대), 이태승(위덕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